

# 韓國 詩話資料 활용 방법의 제시

- 『韓國詩話人物批評集』 所載 女性漢詩 批評資料를 중심으로  
장진엽\*

## 1. 서론

2012년 6월, 韓中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韓國詩話人物批評集』<sup>1</sup>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고려시대 李仁老(1152-1220)의 『破閑集』부터 20세기 李家原(1917-2000)의 『玉溜山莊詩話』까지 총 128종의 詩話資料에 수록된 약 1,500명의 시인에 대한 詩評을 정리한 詩話資料集이다. 기존에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詩話集 및 海外 所在 異本들까지 망라하여 기존의 한국 시화자료집의 성과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또, 영인본을 인쇄하여 수록한 기존 자료집과 달리 원문을 모두 입력하고 표점을 찍었으며 가나다순과 漢語拼音順으로 정리한 492페이지 분량의 색인을 첨부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 책의 편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 순으로 인물을 배열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시화 본문을 시기 순으로 그 아래에 열거하되, 중복된 내용은 거듭 인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이 포함된 서명과 조목만 밝혀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800만 字에 이르는 한국 시화가 156만 자로 간추려졌다.<sup>3</sup> 이러한 편집방식으로 인해 각각의 작가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평가가 어떤 양상으로 계승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一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인해 李鍾殷·鄭珉 교수의 『韓國歷代詩話類編』<sup>4</sup>과 趙鍾業 교수의 『韓國詩話總編』<sup>5</sup>으로 이어지는 한국 시화자료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시화 방면의 연구는 개별 시화의 연구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 비평의 흐름, 즉 詩話史의 검토는 미진했다.<sup>6</sup> 그러나 이 책의 발간으로 지금까지 시화 연구의 難點이었던 자료 수집과 원문 확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시화 연구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고두보가 마련되었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 중국의 문학연구자들이 한국 시화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책에 이어 2012년 12월에는 蔡美花·趙季 교수 主編 『韓國詩話全編校注』<sup>7</sup>가 중국에서 출판되어 중국 내

\* 한국, 연세대학교

<sup>1</sup> 劉暢·許慶震·趙季(2012), 『韓國詩話人物批評集』, 서울:보고사

<sup>2</sup> 尹鎬眞(2012), 「『韓國詩話人物批評集』 1-5권의 출간을 맞이하여」, 『淵民學志』 제18집

<sup>3</sup> 劉暢·許慶震·趙季(2012), p.4

<sup>4</sup> 李鍾殷·鄭珉(1988), 『韓國歷代詩話類編』, 서울:亞細亞文化社

<sup>5</sup> 趙鍾業(1996), 『韓國詩話總編』 1-17, 서울:太學社

<sup>6</sup> 尹鎬眞(2012), p.265

<sup>7</sup> 蔡美花·趙季(2012), 『韓國詩話全編校注』 1-12, 北京:人民文學出版社. 이 책은 조종업 교수의 『韓國詩話總編』을 기초로 하고 40여 종의 자료를 보완하여 전체 136종의 시화 자료의 원문 약 8만 자를 입력하고 표점을 붙인 것이다. 허경

한국 시화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은 이처럼 시화 자체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한국문학 연구의 제 분야에서 시화 자료 활용의 폭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작가론이나 작품론에서 해당 작가·작품에 대한 비평 자료를 활용해 왔으며, 시화자료를 분석하여 각 시대의 詩風이나 作詩傾向에 대해 도출해 내는 방식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의 가치는 그러한 연구 방식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세부 분야에서 시화자료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탐구의 各論으로서, 한국문학의 세부 주제인 古典 女性文學 연구와 관련하여 시화자료가 갖는 가치와 그 활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의 4권의 〈女子〉와 〈伎流〉 편에 수록된 女性漢詩 批評資料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한국 女性漢詩 비평자료 개관

한국의 여성한시는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한문학의 하위 분야이다. 한국의 여성한시 자료집으로는 許米子 교수의 『韓國女性詩文全集』<sup>8</sup>이 대표적이며, 최근 張伯偉 교수에 의해 중국에서 『朝鮮時代女性詩文集全篇』<sup>9</sup>이 출판되어 양국 모두에서 여성한시 연구의 기초자료가 마련되었다. 한편 시화자료의 경우 일찍이 文姬順 교수의 『(韓國古典)女性詩批評研究』<sup>10</sup>에서 조종업 교수의 『韓國詩話叢書』<sup>11</sup>에 수록된 100여 종의 시화자료를 기초로 여성한시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부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여성 시를 수록하거나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해 언급한 기사들을 모두 찾아 46종의 시화집의 해당 기사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인물에 대한 비평을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에 시화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료들, 예컨대 筆記類 저작인 『智水拈筆』이나 『西厓先生文集』 같은 자료들에서 시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사들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허미자 교수의 자료집 및 이후 추가적으로 발견된 여성한시 자료들과 함께 이 책에 실린 여성한시 비평자료들을 참조하면 전근대 시기 여성한시의 창작과 수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 수록된 여성한시 작가는 ‘女子’ 43명, ‘伎流’ 24명으로 모두 67명이며, 여성한시에 대한 비평이 포함된 시화자료는 모두 55종이다. 이들 중에는 『姑婦奇譚』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鄭氏와 며느리 烏氏, 安平大君

진 교수도 이 책의 편집진에 포함되어 있다.

<sup>8</sup> 許米子(2004), 『韓國女性詩文全集』 1-6, 서울:國學資料院

<sup>9</sup> 張伯偉(2012), 『朝鮮時代女性詩文集全篇』 1-3, 南京:鳳凰出版社

<sup>10</sup> 文姬順(1995), 『(韓國古典)女性詩批評研究』, 대전:學民文化社

<sup>11</sup> 趙鍾業(1989), 『韓國詩話叢書』, 서울:東西文化院

- 『韓國詩話人物批評集』 所載 女性漢詩 批評資料를 중심으로 -

의 궁녀 雲英과 같이 가공의 인물로 보이는 작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55종의 시화와 각 시화에 수록된 여성작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의 명칭은 해당 부분의 표제어를 따랐으며, 널리 알려진 다른 명칭이 있는 경우 [ ]를 이용해 병기하였다.

【표 1】 한국시화인물비평집』 수록 여성한시 비평자료 목록

	詩話名	作者	收錄作家名
1	補閑集	崔滋 (1188-1260)	于咄, 動人紅
2	東人詩話	徐居正(1420-1488)	士族鄭氏
3	慵齋叢話	成倪 (1439-1504)	忠宣王所鍾情者, 昔有處女居室者
4	松溪漫錄	權應仁(1517-?)	李媛[玉峯], 勝二喬, 於宇同
5	遣閒雜錄	沈守慶 (1516-1599)	許楚姬[蘭雪軒]
6	淸江先生詩話	李濟臣 (1536-1584)	鄭麟仁母
7	西厓論詩	柳成龍 (1542-1607)	李媛, 許楚姬
8	聞韶漫錄	尹國馨 (1543-1611)	李媛, 許楚姬
9	芝峯類說	李晬光 (1563-1628)	忠宣王所鍾情者, 李媛, 宗室肅川令內子, 許楚姬, 楊士奇妾, 黃眞, 桂生, 擊玄
10	晴窓軟談	申欽(1566-1628)	許楚姬
11	霽湖詩話	梁慶遇 (1568-?)	許楚姬
12	鶴山樵談	許筠 (1569-1618)	李媛, 許楚姬
13	惺叟詩話	許筠 (1569-1618)	李媛, 許楚姬, 桂生
14	涪溪紀聞	金時讓(1581-1643)	宋氏[德峯], 許楚姬
15	菊堂排語	鄭泰齊(1612-1669)	李媛, 許楚姬
16	壺谷詩話	南龍翼(1628-1692)	李媛, 許楚姬
17	水村漫錄	任墜(1640-1724)	黃眞, 桂生, 擊玄
18	小華詩評	洪萬宗 (1643-1725)	宗室肅川令內子, 許楚姬, 楊士奇妾, 士族鄭氏, 黃眞, 桂生, 擊玄
19	詩評補遺	洪萬宗 (1643-1725)	南氏, 李媛, 許楚姬, 楊士奇妾, 李氏, 黃眞, 桂生
20	詩話叢林·證正	洪萬宗 (1643-1725)	李媛, 許楚姬
21	西浦漫筆	金萬重 (1637-1692)	許楚姬, 黃眞
22	晦隱瑣錄	南鶴鳴 (1654-1722)	李媛, 蔚山李氏, 金旻之女
23	陶谷雜著	李宜顯 (1669-1745)	許楚姬
24	東國詩話彙成	洪重寅 (1677-1752)	先進家新寡女, 李世璣婢, 桂生
25	左海哀談	(佚名)	李梅軒·趙玉簪
26	屯庵詩話	申昉 (1685-1736)	許楚姬, 蔚山李氏
27	西京詩話	金漸	李一枝
28	別本東人詩話	(佚名)	先進家新寡女, 沈氏, 金氏(吳瑗母), 翠蓮
29	筆苑散語	成涉	先進家新寡女

30	清脾錄	李德懋 (1741-1793)	先進家新寡女, 李媛, 黃眞, 一枝紅, 擊玄, 福娘
31	二句錄	具樹勳	許楚姬, 蔚山李氏, 李世璣婢, 林姓女, 黃眞
32	(佚名) 海東詩話	(佚名)	南從萬妻, 華山母氏
33	(吳宗根藏本) 海東詩話	(佚名)	娼某
34	薑山筆彙	李書九 (1754-1825)	李媛, 許楚姬, 德介
35	螢雪記聞	李存性	林庭家小婢
36	蘭室詩話	成海應(1760-1839)	權貴妃, 影響堂某氏, 趙家姬, 雲慧, 一枝紅
37	方是閒輯	尹行恁 (1762-1801)	金氏(宋徵相妻), 趙氏, 清兮, 李姬, 香靄, 蕙心
38	三溟詩話	姜浚欽(1768-?)	權貴妃, 影響堂某氏
39	東人論詩絕句	申緯 (1769-1845)	許楚姬
40	青丘詩話拾遺稿	徐湄(1785-1850)	許楚姬, 嶺南星州李氏, 鄭基善妾, 芙蓉, 蘆兒, 慶州妓某
41	詩家點燈	李圭景 (1788-1856)	薛瑤, 鄭麟仁母, 李媛, 許楚姬, 蔚山李氏, 延安李氏, 嶺南星州李氏, 於宇同
42	茨山筍錄鈔	朴善性	南氏, 三宜堂金氏
43	智水拈筆	洪翰周 (1798-1868)	芙蓉
44	古今詩話	李遇駿	南氏, 許楚姬
45	(竹聖堂改定本) 海東詩話	竹聖堂主人	雲英
46	玉磬觚臚記	李裕元(1814-1888)	景蕙
47	(佚名) 東詩叢話	(佚名)	鄭氏, 慶氏, 丁舜孝妾
48	讀國朝諸家詩	黃玿 (1855-1910)	許楚姬
49	姑婦奇譚	(未詳) <sup>12</sup>	鄭氏·烏氏
50	(安肯來) 東詩叢話	安往居(1858-1929) <sup>13</sup>	李媛, 許楚姬, 鄭氏·烏氏, 擊玄, 蔡玄霞
51	榕燈詩話	鄭萬朝(1858-1936)	錦鶯·九香·香心
52	葦庵漫錄	張志淵 (1864-1921)	黃眞, 芙蓉
53	巖棲雜說	曹兢燮(1873-1933)	宋氏
54	東詩話	河謙鎮(1870-1946)	徐氏[永壽閣], 黃眞

<sup>12</sup> 『고부기담』은 安往居를 중심으로 한 辛亥噺社 관련 인물들의 공동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 (成珉京(2011), 『『고부기담』 연구-작자 문제와 창작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pp17-24)

<sup>13</sup> 최재남 교수의 고증에 따라 해당 시화의 저자를 安往居로 표시한다. (최재남(2003), 『『동시총화』 연구』,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장』, 창원:경남대학교 출판부)

55	玉溜山莊詩話	李家源 (1917-2000)	薛瑤, 許楚姬, 黃眞, 孝娥
----	--------	-----------------	-----------------

### 3. 여성한시 연구와 시화자료의 활용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여성문학’이라는 용어는 한국문학 중에서 고전문학의 하위범주로서의 여성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성한시’ 연구는 고전 여성문학 중에서 여성이 지은 한시 작품을 지칭한다. 여성한시 외에 고전 여성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한 축은 時調, 歌辭, 內簡 등을 포함하는 한국어문학의 영역이다.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共同文語였던 한문과 별개로 自國語文學을 향유해 왔다. 이들 자국어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문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요하므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또한 시화는 본래 한시를 비평하는 것이므로 여성문학 중에서도 여성한시 연구에서 활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여성문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접근법이 있어서, 각 방식에 따라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첫째는 여성 작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즉 여성 작자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는 고전문학 작품 전체를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성 작가의 작품 속 여성 형상이나 작가의 여성 인식 등 고전문학 전반에 나타난 젠더의 요소에 주목한다. 또한 개별 작품뿐 아니라 당시의 문학 활동 전체를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시화자료는 위의 두 가지 방식의 연구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는 前近代 한문학의 非主流로서 존재했던 여성작가의 작품들을 발굴하여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연구의 기초가 된다. 앞서 언급한 허미자 교수의 자료집이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화는 기본적으로 개별 작가의 작품을 제시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성한시 작품의 발굴 및 그 특질 분석에 도움을 준다. 한편 시화가 본래 문학비평이며 따라서 특정한 談論의 생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자료의 함의를 읽는 작업은 자동적으로 담론 분석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화자료가 후자의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것도 분명하다.

위의 두 가지 방식은 물론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개별 작품의 분석과 관련해서 후자의 관점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첫 번째 방향의 연구와 관련하여 시화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이 책의 편차가 제공하는 이점에 주목하여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시화자료에 나타나는 여성문학 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 3.1. 시화자료를 통한 여성한시 작품의 이해

첫째, 當代 및 後代의 비평자료는 작품 및 작가 연구에 있어 주요한 보조 자료가 되는데, 여성한시의 연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화자료들은 시평뿐만 아니라 시 창작의 배경과 상황까지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여성이 시를 짓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므로 특히 여성

한시를 연구할 때는 각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창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작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해당 작품의 함의와 특질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은 여성한시 비평자료를 총망라하여 인물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별 작가들의 작품이 창작된 상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정한 여성한시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예를 한 가지 살펴보자.

○ 『聞韶漫錄』 원下 : 근세 閨秀로는 許氏[金誠立의 아내로, 許曄의 딸]가 제일 뛰어났고, 忠儀 李逢의 첩의 딸 또한 시에 능하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친구 伯玉 趙瑗의 소실이었다. 己丑年에 내가 새로 尙州에 부임하게 되었고 백옥은 星州 牧使에서 遞職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고을 관소에서 묵었다. 나와 백옥이 그 첩이 사는 곳에 술상을 차렸다. 백옥이 시를 지어 나에게 주기를 권하자, 李가 즉석에서 입으로 불러 백옥에게 쓰게 하였다.

洛陽의才子를 어찌 이리 늦게 불러서	洛陽才子何遲召
湘潭賦 지어 屈原을 애도하게 하나.	作賦湘潭弔屈原
손으로 逆鱗 잡는 것은 위태로운 길	手拚逆鱗危此道
淮陽에 편히 누운 것 또한 임금의 은혜일세.	淮陽高臥亦君恩

음으며 구상하는 사이에 손으로 白疊扇을 만지기도 하고 입을 가리기도 했다. 그 소리가 맑고 구슬퍼서[清婉淒絕] 인간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다.[그 처의 호는 玉峯이다.]<sup>14</sup>

위 기록에는 저자 尹國馨이 친구 趙瑗(1544-1595)의 첩이었던 李玉峯을 만난 경험이 담겨 있다. 이 기사를 통해 볼 때 이 시가 內職에 나아가지 못한 남편의 친구를 위로하는 뜻이 담긴 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사대부 남성이 자신의 소실에게 술자리에서 즉석으로 시를 짓게 하고 그것을 받아 적어 친구에게 증명하기도 했던 시 창작의 현상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장의 정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시의 함의가 분명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옥봉이 누구의 입장에서 이러한 시를 창작했는지, 나아가 작품에 담긴 정서와 관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이 일화는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시화 작자의 직접경험이므로 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정황상 작자는 옥봉이 지어준 한시를 받아왔을 것이므로 제시된 작품이 창작 당시의 원형에 가까울 것임도 짐작할 수 있다.<sup>15</sup>

옥봉의 시와 관련된 기사 중 하나를 더 예로 들어 보자. 옥봉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自述〉(혹은 〈夢魂〉)시에 대한 기사이다.

○ 『晦隱瑣錄』 :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은 재주가 덕을 능가해서 출척을 당했다. 후에 시를 지어 승지에게 보냈다.

<sup>14</sup> 近世閨秀, 許氏[金誠立妻, 許曄女]爲最, 而忠儀李逢之妾女, 亦有能詩聲, 友人趙伯玉[瑗]畜之. 己丑, 余新赴尙州, 伯玉遞星牧上京, 歷宿於州館. 余與伯玉, 設酌於其妾所寓處. 伯玉勸作一句詩以贈我, 李即席口占, 倩筆伯玉曰, “洛陽才子何遲召, 作賦湘潭弔屈原. 手拚逆鱗危此道, 淮陽高臥亦君恩.” 吟咏構思之際, 手麾白疊扇, 時或掩唇. 其聲清婉淒絕, 似非人世間人. [其妾號玉峯]

<sup>15</sup> 후술하겠지만, 옥봉의 문집인 『嘉林世稿』는 작가 사후 100여 년이 흐른 후에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므로 작자의 진위 여부 및 작품의 원형 확정이 쉽지 않다.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찌 지내시나요. 사창에 달 비칠 때 제 한은 깊어가요. 만약 꿈속의 혼이 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문 앞의 돌길 이미 모래가 되었을걸. 그러나 끝내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승지는 곧 竹陰 趙希逸의 아버지이다. <sup>16</sup>	近來安否問如何 月到紗窗妾恨多 若使夢魂行有跡 門前石路已成沙
---	--

이 기사의 기록 연대는 옥봉의 생존시기와 1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며, 이미 유명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그 배경을 밝힌 것이므로 창작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시화에서 언급한 창작배경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그 기록은 작품 이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옥봉의 이 작품은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떨어져 있는 情人에 대한 사모를 표현한 시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독자들은 이 시의 주된 정조를 ‘黜斥된 여인의 한’이라고 보았다.<sup>17</sup> 이렇게 보면 轉句와 結句의 낭만적인 상상력은 其實은 풀리지 않는 괴로움, 安着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위 시는 옥봉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앞 시기 尹鉉(1514-1578)의 작품을 변개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sup>18</sup> 다음은 『芝峯類說』의 기록이다.

判書 尹鉉이 충청도 方伯을 지낼 때, 청주에 아끼던 이가 있었다. 뒷날 이런 시를 지었다.

인생살이 이별 만남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눈물 참던 그때에 손 놓은 것 슬프구나. 만약 꿈속의 넋이 자취를 남긴다면 西原城 북쪽이 온통 길이 되었을 걸. 오직 結구가 좋은 듯하다. <sup>19</sup>	人生離合苦無齊 忍淚當時愴解携 若使夢魂行有跡 西原城北摠成蹊
--	--

전구와 結구의 발상이 옥봉 시와 같다. 그러나 이 시의 해당 구절은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애타는 마음만 나타나 있을 뿐 옥봉의 시와 동일한 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작품 자체만을 놓고 감상했을 때에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시를 분석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시화자료에 언급된 창작배경을 참조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둘째, 시화자료는 여성한시 작품의 原典批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개별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작가론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원전비평이 제대로 이루어

<sup>16</sup>趙承旨璵之妾李玉峰,以才勝德見黜。後作詩送呈承旨曰,“近來安否問如何,月到紗窗妾恨多。若使夢魂行有迹,門前石路已成沙。”終不更奮。承旨即趙竹陰希逸之父。

<sup>17</sup>趙正萬(1656-1739)이 쓴 〈李玉峰行蹟〉(『寤齋集』 권3)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歸家多年,有詩曰,“近來安否問如何,月到紗窗妾恨多。若使夢魂行有迹,門前石路已成沙。”語意悲切,感人者深,而公竟不許其還來,可見家法之甚嚴也。)

<sup>18</sup>李鍾文(2011),「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韓國漢文學研究』 제47집, 서울:한국한문학회, p483

<sup>19</sup>尹判書鉉爲忠淸方伯時,淸州有所旃。後有詩曰,“人生離合苦無齊。忍淚當時愴解携。若使夢魂行有跡,西原城北摠成蹊。”唯結句似好。

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현행 여성한시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여성한시 작품은 文集으로 전해오는 분량이 많지 않고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을뿐더러 문집이나 詩選集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화자료들이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우선 앞서 언급한 이옥봉 작품을 거론할 수 있다. 옥봉의 시들은 작가가 죽은 후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원의 玄孫인 趙正萬에 의해 『嘉林世稿』의 부록으로 편집된 작품들, 즉 작가 사후 구비 전승된 것들을 수집한 작품들이다. 이 때문에 다른 작가의 작품이 옥봉의 이름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기존 작품을 변형한 작품이 옥봉의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金宗直의 작품 〈寶淺灘〉이 『列朝詩集』에 옥봉의 시로 잘못 실려 후일 문제가 되기도 했다.<sup>20</sup> 李鍾文 교수는 옥봉의 생존 시기 및 여러 문헌의 기록들을 고려하여 그의 작품 40편 중에 17편이 타인의 작품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했다.<sup>21</sup> 이 과정에서 이종문 교수는 여러 文集과 詩選集 외에 『청비록』, 『지봉유설』, 『성수시화』, 『학산초담』, 『동시화』, 『청창연담』, 『시화총림』과 같은 시화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竹西樓〉 시는 『西厓集』, 『청창연담』, 『일사유사』에 옥봉의 작품으로 나타나 있고, 신흠은 ‘고금의 시인 가운데 이 작품에 미친 사람이 없었다’는 극찬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홍만중은 신흠의 이 말을 거론하면서 해당 구절(“江吞鷗夢闊, 天入雁愁長.”)이 唐 項斯의 시구(“水涵萍勢遠, 天入鴈愁長”)에서 나왔다고 하였다.<sup>22</sup> 이종문 교수는 홍만중의 언급에서 더 나아가 宋 陳杰의 작품 중에 옥봉의 시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어 옥봉 시구의 출처를 밝혀냈다.<sup>23</sup> 동일 작품에 대한 각 시대의 서로 다른 기록들을 비교하여 해당 작품의 유래를 찾아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한편 작가 고증을 위해 시화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전승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한 예도 있다. 『安東世稿附聯珠錄』은 金盛達(1642-1696)과 그의 처 延安 李氏의 酬唱詩 및 자녀들 사이의 수창시를 실은 책이다. 具智賢 교수는 이 책의 체제와 본문을 통해 각 작품의 작자와 창작시기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시화자료에 기록된 사실과는 다름을 알아냈다.<sup>24</sup> 다음은 김성달 가문 여성들의 작품을 거론한 이규경의 기록이다.

<sup>20</sup> 李德懋, 『淸脾錄』 권2 : 小室李氏, 宗室裔也. 號玉峯. 有詩三十二篇. 而十一篇. 見錄於列朝詩集. 其中寶淺灘詩. “桃花高浪幾尺許, 銀石沒頂不知處. 兩兩鷗失舊磯, 啣魚飛入菰蒲去.” 載於佔畢齋集.

<sup>21</sup> 李鍾文(2011)

<sup>22</sup> 洪萬宗, 『詩話叢林』 附證正6 : 象村晴窓軟談云, “趙瑗妾李氏詩一句, ‘江吞鷗夢闊, 天入雁愁長.’ 古今詩人, 未有及此者.” 余見唐人項斯詩曰, “水涵萍勢遠, 天入鴈愁長.” 李氏此句, 全出於此, 象村豈不見項斯詩耶?

<sup>23</sup> 李鍾文(2011), pp486-487

<sup>24</sup> 具智賢(2004), 「『安東世稿附聯珠錄』 소재 작품의 작가와 시작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서울:한국고전여성문학회

『시가점등』 권5 內家酬贈聯珠錄 : 高城 金盛達은 자가 伯兼이고 安東 사람이다. 仙源相公 尙容의 후손으로 고성군수를 지냈으며 시에 능했다. 그 아내 延安 李氏와 副室인 蔚山 李氏 및 자녀 열세 명이 모두 시를 잘했다. 『內家酬贈詩』 한 권이 있는데 그 부인 및 부실과 창화한 것을 그 자녀들이 지은 것과 합쳐서 『聯珠錄』이라고 제목을 붙여 모두 두 권이 된다. 규방에서 읊은 것 약간 수를 모은 것이지만 또한 우리나라 고금에 없었던 일이다.<sup>25</sup>

이규경은 이어서 연안 이씨와 울산 이씨, 딸들과 김성달의 시를 실고 있는데, 여기에 실린 딸들의 시는 『연주록』을 통해 확인되는 작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구지현 교수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까닭을 이규경이 본 작품집이 현전하는 『안동세고부연주록』과 동일본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위 기록에서는 김성달이 아내 및 부실과 창화한 것을 한 권으로 묶었다고 하였는데 現傳 『안동세고』는 김성달과 연안 이씨의 수창시만을 수록하고 있다. 『연주록』 또한 위 기록과 달리 열세 명의 자녀가 아닌 연안 이씨의 자녀 6명과 울산 이씨의 작품만 실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동세고부연주록』에는 보이지 않는 二女密城君室의 작품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이규경이 본 책이 김성달의 큰아들 김시택이 편집한 현전 『연주록』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밀성군실의 시는 모두 다른 형제들의 시이다.

김성달과 울산 이씨, 서녀의 시를 모아 시선집 『宇珍』을 편찬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서자녀들과의 창화시집이 따로 있었을 것임도 짐작할 수 있다. 구지현 교수는 『안동세고부연주록』과 김성달, 울산 이씨, 庶子女들의 창화시 등을 합쳐 후일 새롭게 『내가수증연주록』 전집이 편집되었고, 그 와중에 오류가 생겨 다른 형제들의 시가 밀성군실의 시로 誤認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sup>26</sup> 시화의 기록을 통해 특정 시문집의 편집과 전승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던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규경의 기록은 김성달 가문에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한시를 창작하고 향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김성달의 딸인 金浩然齋는 18세기 畿湖老論 가문 출신의 대표적인 여성한시 작가이다. 위의 기록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호연재라는 여성작가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자주 인용되어 왔다. 이처럼 시화자료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시기의 개별적, 집단적인 문학적 실천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여성문학 연구는 이와 같은 기록들에 많은 부분 힘입고 있으며,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의 발간으로 그러한 활용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3.2. 시화자료를 통한 여성한시 담론의 고찰

한문학에서 ‘여성한시’라는 하나의 범주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 대상 작품의 특질을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집이 전하는 몇몇 여성시인들 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두 편, 많아야 대여섯 편이 여러 자료들에 흩어져 전해진다. 이 작품들은 개별 작가론의 연구

<sup>25</sup> 金高城盛達, 字伯兼, 安東人, 仙源相公尙容之後, 官高城郡守, 能詩. 其配延安李氏, 副室蔚山李氏及子女十有三人俱能詩, 有內家酬贈詩一卷. 與其夫人副室唱和者, 合其子女所作, 名曰聯珠錄, 並二卷. 但收其閨房所詠若干首, 亦鳴東古今未曾有也.

<sup>26</sup> 具智賢(2004), pp56-58

대상이 되기는 힘들며, 하나의 作品群으로 포괄하여 그 성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존재양상 자체가 이 작품들이 여성의 所作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여성문학의 테두리에서 논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법이다. 문학이 남성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전근대 시기 여성한시의 존재는 우연하고 특별한 것이었거나, 사대부들의 餘興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여성한시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화자료는 해당 시기 여성문학을 둘러싼 담론을 고찰할 때에 주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시화자료를 통해 당시 여성한시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논평되었는지, 나아가 과거 한문학에서 여성문학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화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집 등에 출현하는 다른 언급들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화는 본격적으로 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글이므로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자료가 된다.

그런데 先人들의 기록을 祖述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당시의 글쓰기 방식에 따라, 여성한시에 대한 언급도 이전 시기의 기록이 나중까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시화인물비평집』은 인물과 관련된 기사를 제시하고, 다른 시화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을 경우 같은 항목에서 해당 내용을 나열하였다.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기사도 같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 인물에 대한 다른 논평이 나올 경우 항목을 바꾸어 기사를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후대 시화의 동일 내용을 나열하였다. 한편 같은 책에 실린 기사라 하더라도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항목을 달리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해당 시인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후대에 어떤 양상으로 계승, 변형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아래에서는 역대 시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蘭雪軒 許楚姬(字는 景樊. 1563-1589)에 대한 기록을 통해 특정한 여성 시인에 대한 담론이 시화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허미자 교수는 『견한잡록』, 『지봉유설』, 『용등시화』, 『학산초담』, 『부계기문』, 『청비록』 등 위의 표에 포함된 기록과 시화 외의 다른 문집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난설현에 대한 전근대 시기의 평가를 종합하기도 하였다.<sup>27</sup> 본 발표는 시화자료의 활용방식을 제시하는 글이므로, 시화 외의 문집 속 기록들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난설현에 대한 기록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시화인물비평』에 수록된 시화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으며, 단순히 이름만 거론한 기사 몇 편은 제외하고 저자의 견해가 드러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

<sup>27</sup> 허미자(2007), 『허난설현』, 서울: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허미자 교수는 이 책에서 난설현에 대한 과거의 기록들을 ‘여성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칭찬과 비난’, ‘표절 시비에 대하여’, ‘순수문학적 평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pp198-224) 본 발표에서도 이 책에서 취한 방식과 유사한 항목으로 기사를 분류하였다. 다만 허미자 교수가 시화와 각종 문집에 나타난 대표적 자료들을 선별하여 난설현에 대한 주요한 평가를 검토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시화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개별 자료에 대한 해석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 『韓國詩話人物批評集』 所載 女性漢詩 批評資料를 중심으로 -

였다.

[표2] 허난설헌 관련 시화 기록

	기사내용	수록시화
1	1-1. 부인이 시에 능한 것은 중국에서는 기이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다. 허봉과 허균은 시로 이름났는데 그 누이 허씨는 더 뛰어나다. 혹 ‘부인은 마땅히 酒食을 의논하고 누에치기와 베 짜기를 숭상해야 할 뿐 시 읊조리는 일은 좋은 행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기이함을 탄복할 만하다.	『遣閑雜錄』
	1-2. 난설헌 허씨는 근세 규수 중 제일이다. 일찍 죽었는데 시집이 세상에 돌아다닌다. 평생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怨詞가 많다. (시 2편 인용) 두 작품은 방탕하고 음란하여 시집에는 실리지 않았다.	『芝峯類說』 권14 문장부7 閨秀 『詩評補遺』 補
	1-3. 부인으로 시를 잘하는 자는 그 재주를 하늘이 이룬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 난설헌도 시 때문에 당시에 비방을 많이 받았으며 중국인들에게 女道士로 알려졌으니 안타깝다.	『屯庵詩話』
	1-4. (시 1편 인용) 난설의 시는 모두 절창이지만 방탕하고 음란하여 규방 여인의 태가 없다. 이로써 사대부가 규문 안에서 詩詞를 교습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古今詩話』
2	2-1. “근세 여자로 시에 능한 자가 몇 있는데 그 중 허씨의 재주가 매우 뛰어나다. (시 2편 인용) 모두 초탈하고 깨끗하여 좋아할 만하고[脫灑可愛] 唐詩에 아주 가깝다.”	『西厓先生文集』 雜著 女子能詩
	2-2. 난설헌집 속의 모든 작품은 놀랍고 빼어나다. <廣寒殿上樑文>은 곱고 아름다우며 맑고 굳건하여[瑰麗清健] 四傑의 작품과 비슷하다. 다만 遊仙詩는 태반이 고인의 전편이다. 혹 말하길 허균이 표절하여 넣었다고 하니 사실인 듯하다.	『晴窓軟談』 권下
	2-3. 난설헌의 시는 자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시어가 모두 맑고 깨끗하였으며 문은 奇崛하였고 四六文이 특히 좋아 <白玉樓上樑文>이 세상에 전한다.	『鶴山樵談』
	2-4. 난설헌은 시의 音律에 정통했음. 일화를 통해 뛰어난 詩才를 칭송.	『鶴山樵談』 『二句錄』 권上
	2-5. 난설헌이 시에 능하고 기상이 호방함.	『菊堂排語』
	2-6. 난설헌의 시는 盛唐의 풍격이 있음. 난설헌을 조선시대 唐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으며 風格 비평.	『惺叟詩話』 『壺谷詩話』 詩評 東詩
3	3-1. 난설헌집의 작품 중 옛날 중국 시인의 작품을 활용하여 모방, 절취한 작품이 있음을 예를 들어 증명.	『芝峯類說』 권14 문장부7 旁流 『芝峯類說』 권14 문장부7 閨秀 『涪溪紀聞』
	3-2. 난설헌의 시를 허균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지만 난설헌은 격조가 허봉보다도 높고 허균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님.	『壺谷詩話』 詩評 東詩
	3-3. 중국에서 난설헌의 시가 流傳하는 것에 대해 언급	『小華詩評』 권下 『陶谷雜著』

	3-4. 허균이 元明 시인의 구절을 빌려 누이의 명성을 과장했다. 난설헌의 제주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칭송할 만한데 허균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으니 탄식할 만하다.	『西浦漫筆』
	3-5. 난설헌이 방탕한 작품을 썼다는 점, 옛 시인의 구절을 절취했다는 점 등에 대한 변론.	安靑來 『東詩叢話』
	3-6. 난설헌에 대한 潘庭筠과 洪大容의 대화, 朴趾源이 청나라에 갔을 때 난설헌의 이름 및 신분에 대해 고증하고 그 소회를 밝힌 기록 언급.	『玉溜山莊詩話』
4	난설헌이 꿈에서 시를 지었는데 이것이 詩讖이 되었음.	『鶴山樵談』 『詩家點燈』 권1 『東人論詩絕句』 其十三 『二句錄』 권下

표의 1번 항목에 나열된 자료들은 난설헌의 作詩 활동 자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표출한 기록들이다. 2번 항목의 자료들은 난설헌의 작품에 주목하여 그 풍격을 논한 것이며, 3번은 난설헌 시의 중국 유입과 『난설헌집』 소재 작품들의 출처에 대해 언급한 기록들이다. 4번은 난설헌의 죽음과 관련된 詩讖을 소재로 한 기록인데, 빈번히 등장하므로 따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1번 항목 자료의 저자는 순서대로 沈守慶(1516-1599), 李暉光(1563-1628), 鄭泰齊(1612-1669), 申昉(1685-1736), 李遇駿(18세기 후반~19세기 초)이다. 앞의 세 사람은 모두 난설헌 및 그의 아우 許筠(1569-1618)과 같은 시대의 저자이며, 신방 역시 시대가 몇 세대 지나긴 했으나 18세기 중반을 넘지 않은 때의 인물이다. 이 시기의 기록들은 주로 난설헌이라는 뛰어난 여성시인의 존재에 대한 報告, 그러한 돌출적인 현상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앞의 [표1]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16세기에 옥봉과 난설헌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몇몇 기생들에 대한 일화 형식의 기록들이 전부였다. 權應仁(1517-?), 심수경에 와서야 시화에서 여성시인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1-1에 보이는 ‘부인은 마땅히 酒食을 의논하고 누에치기를 숭상해야 할 뿐 시 읊조리는 일은 좋은 행실이 아니다’<sup>28</sup>라는 言說은 기생이 아닌 사대부 여성시인이 출현한 당시부터, 뒷날 가문 내에서의 여성의 문학 활동이 상당한 정도로까지 용인되는 18·19세기에 이르러서까지도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여성이 시를 짓는다는 현상 자체가 놀라움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18세기 홍대용(1731-1783)은 난설헌의 德行이 그 시에 미치지 못함을 들어 비난하였는데, 여기에는 여성이 詩作에 힘쓰는 것을 일종의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난설헌의 작품이 음탕하다고 한 1-2의 기록은 비록 두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이지만, 이러한 평가의 바탕에는 여성 시인의 작품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시가 올바른 性情을 표현하기 힘

<sup>28</sup> 심수경, 『遣問雜錄』: 議者或以爲婦人當酒食是議, 而休其蠶織, 唯事吟哦, 非美行也。

들다는 관념이다. 1-3에서는 부인이 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준 재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 역시 여성의 詩作을 우연하고 기이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4의 기록은 1-2의 기록을 답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자가 사대부 가문의 규방 안에서 詩詞를 익혀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여성의 시 창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이지만, 여기에는 1-3과 달리 여성이 시를 배우고 익혀 잘하게 될 수 있다는 후대의 인식이 담겨 있다.

2의 항목은 난설현의 詩風을 평한 기록들로, 난설현의 시가 唐詩에 가까우며 詩格이 맑고 깨끗하다는 언급이 주를 이룬다. 같은 시기 당풍을 선도한 李達이나 白光勳과 나란히 놓거나 우열을 비교하는 등의 언급도 있다. 또 난설현이 시의 音律에도 정통하여 자연스럽게 詞를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난설현의 작품을 기록하여 시집으로 만든 장본인인 허균과, 허균의 부탁으로 난설현집의 序를 써주기도 한 柳成龍의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의 申欽(1566-1628)은 비록 난설현의 유선시가 고인의 시를 모방한 것임을 비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의 작품이 瑰麗淸健하여 初唐四傑의 풍모가 있다고 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29</sup> 나아가 17세기 말의 남용익은 東詩의 전체 맥락 속에 난설현의 시를 위치시켰는데,<sup>30</sup> 이는 여성 시인의 작품을 詩史의 관점에서 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3번 항목의 기록들은 난설현 작품의 출처 및 중국에서의 流轉에 대해 논한 것들이다. 이는 『지봉유설』에서 〈採蓮曲〉을 비롯한 난설현의 몇몇 작품의 출처가 중국의 옛 시에 있음을 논한 이래로 19세기까지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어온 주제이다. 그런데 『지봉유설』부터 『호곡만필』에 이르기까지는 허균의 代作 여부나 난설현 작품의 眞僞 여부 자체가 문제시 되었다면, 17세기 초 『소화시평』부터는 중국에서 출판된 詩選集 속의 오류를 고증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했다. 17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淸朝 지식인과의 교류와 접촉이 이러한 태도를 심화시켰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난설현의 작품은 이미 16세기부터 중국에 알려져 있었고, 조선 내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청나라 문인들과의 직접적 교류가 증대하고, 또 조선 내에서도 博學과 考證의 학풍이 발전하고 있던 18세기에 이르러 작품의 고증 문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錢謙益(1582-1664)의 아내 柳如是(1618-1664)가 난설현 작품의 출처에 대해 하나하나 변론한 일이 이러한 경향을 촉발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의 시화 저자들이 시급하게 생각한 것은 중국에 잘못 알려진 난설현의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 바로잡는 문제이다. 일개 여성이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친 일에 대해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士大夫家 여성이 ‘道士’라는 식으로, ‘경번당’이란 명칭이 杜牧을 흠모하여 지은 것이라는 식

<sup>29</sup> 신흠, 『淸窓軟談』 권下 : 許草堂之女, 金正字誠立之妻, 自號景樊堂。詩集刊行于世, 篇篇驚絕。所傳廣寒殿上樑文, 瑰麗淸健, 有似四傑之作。

<sup>30</sup> 남용익, 『壺谷詩話』 詩評 東詩 : 我朝詩, 諸名家各有所尚。四佳·挹翠·容齋·佔畢·湖陰·蘇齋·芝川·簡易·澤堂尙宋, 忘軒·沖庵·企齋·思庵·李純仁·鵝溪·荷谷·蘭雪[許氏]·孤竹·玉峰·蓀谷·芝峰尙唐, 石川·霽峰·白湖·石洲·東岳·五峰·月沙·體素·五山·東溟合取唐宋, 象村·白洲·觀海合取唐明。

으로 와전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sup>31</sup> 이는 난설헌이라는 시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조선의 작품이 중국 문헌에 인용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태도이다. 『시가점등』의 작자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이 논란의 경과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sup>32</sup>

이상 『한국시화인물비평집』에 정리된 허난설헌 관련 기록들을 통해 詩話史에 나타난 여성문학 담론의 변천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난설헌은 60여 명의 여성작가 중에서 가장 풍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이므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뼈대로 하고 문집 속의 관련 기록을 보완하면 이러한 전개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記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난설헌 이외의 다른 여성 문인들에 대한 기록 역시 저자의 기록 태도나 저술 시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되면 여성문학을 둘러싼 담론이 전개된 방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33</sup>

#### 4. 나가며

본 발표에서는 최근 발간된 『한국시화인물비평집』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한시 연구 분야에 시화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활용된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 방법들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에 본고의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난설헌과 관련된 기록을 하나 더 인용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李德懋가 홍대용(湛軒)과 청나라 潘庭筠(蘭公)의 대화를 기록한 〈天涯知己書〉의 한 부분으로, [표2]의 3-6에 인용된 자료이다. 대화의 아래에 붙은 논평은 炯庵居士, 즉 이덕무의 의견이다.

난공 : “귀국의 정변당은 허봉의 누이동생으로 시에 능해서 그 이름이 중국의 詩選에 실렸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담헌: “이 부인의 시는 훌륭하지만 그의 덕행은 전혀 그의 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남편 金誠立은 재주와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생에서 김성립을 이별하고 / 저 생에서 두목지를 따르고 싶네.’ 이 시만 보아도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공 : “아름다운 부인이 못한 남편과 부부가 되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sup>31</sup> 申昉, 『屯庵詩話』: 我國蘭雪許氏亦以詩負謗於當時, 固不少矣。而近見清人尤侗文集中所謂長洲樂府者, 卷末詠外國事, 而蘭雪爲女道士, 又直稱許景樊蓋女道士之云。必因其所作玉樓上樑文上清步虛等謠, 認定爲女冠, 而景樊之號, 乃時人浮薄者謬辱之語, 而遂爲口實, 至流入中國, 誠一寄冤也。; 李書九, 『薑山筆彙』 권上 : 列朝詩集十七則世傳許氏失愛於其夫, 故嘗有詩云, “人間願別金誠立, 地下長隨杜牧之。” 仍號景樊堂, 蓋言景仰樊川也。然許氏實無此事, 而好事者轉相附會, 枉受此名。至於虞山·秀水, 則皆誤以景樊爲其名, 又蘭雪其號, 非字也。

<sup>32</sup>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5 論史類2 人物

<sup>33</sup> 이 장에서 설명한 방법, 즉 시화자료를 통해 여성문학에 대한 담론이 전개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방식을 활용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박영민(2003), 「시화의 기생한시 담론과 심미의식」, 『漢文教育研究』 제20호, 용인: 한국한문교육학회; 文姬順(2007),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韓國言語文學』 제62집, 대전: 한국언어문학회; 朴賢淑(2009),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성문학 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제4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형암은 논한다. 듣건대 경변은 스스로 지은 호가 아니고 부박한 사람들이 기롱하는 뜻으로 붙인 것이라 한다. 담헌도 이에 대해서는 미처 분변하지 못했다. 중국의 책에는 허경변과 허난설현을 다른 사람이라 했고, 또 ‘그의 남편이 왜적의 난에 절조를 지키다가 죽자 허씨는 여자 도사가 되어 일생을 마쳤다.’ 고 했으니, 와전됨이 너무 심하다. 난공이 만약 詩話를 편집할 때 담헌의 이 말을 실는다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그의 시가 錢受之(수지는 전점익의 자)의 첩인 유여시의 경우와 같아 결함을 지적하자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또한 기박한 운명이다. 세상에서는 허씨의 시를 모두 맹랑하다고 한다. 이를테면, ‘첩이 직녀가 아니니, 남군이 천우일 수 있으랴.’ 한 이 시도 중국 사람의 시이기 때문이다.<sup>34</sup>

이 예문은 18세기 女性文人을 대하는 중국과 조선의 태도 차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홍대용은 여성의 詩作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전통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반정균은 조선인들 앞에서 자기 아내의 詩文을 거론하는 등 여성의 문학 활동에 대해 煽揚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화에 대해 이덕무는 난설현의 사적이 중국에 잘못 기록된 점을 거론하며 그것을 고쳐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와전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덕무 역시 마찬가지로 난설현과 상관없는 작품을 그가 지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이덕무의 태도는 홍대용과 같이 강경하지는 않다. 오히려 전점익과 유여시에 의해 난설현이 심하게 비판 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sup>35</sup> 허난설현 문학과 관련된 여러 층위의 담론들이 이 기록에서 생생하게 교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漢詩는 한국 고전문학의 핵심적인 영역이자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共同文語文學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한시 연구의 각 단계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詩史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한시 연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시사를 포괄한 지난 시기 문화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치밀한 서술을 지향하며, 이러한 전체적인 서술이 한국문학 교육의 각 분야에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의 재료 역할을 하는 것이 개별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이며, 그러한 개별 연구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담론 분석이다. 3.1과 3.2에서 논한 연구 방법이 바로 이 두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우선 여성한시와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여성한시 외에도 한국문학 연구의 많은 부분에서

<sup>34</sup> 이덕무, 「天涯知己書」 筆談, 『靑莊館全書』 권63 : 蘭公曰, “貴國景樊堂許翁之妹, 以能詩名。入中國選詩中, 豈非幸歟。” 湛軒曰, “此婦人, 詩則高矣。其德行遠不及其詩。其夫金誠立, 才貌不揚, 乃有詩曰, ‘人間願別金誠立, 地下長從杜牧之。’ 卽此可見其人。” 蘭公曰, “佳人伴拙夫, 安得無怨。” 炯菴曰, 嘗聞景樊, 非自號, 迺浮薄人侵譏語也。湛軒亦未之辨耶。中國書, 分許景樊, 蘭雪軒爲二人。且曰, 其夫死節於倭亂, 許氏爲女道士以終身, 其誣亦已甚矣。蘭公若編詩話, 載湛軒此語, 豈非不幸之甚者乎。且其詩爲錢受之柳如是指摘瑕類, 無所不至, 亦薄命也。世所傳許氏詩云皆孟浪。‘如妾身非織, 郎豈是牽牛。’ 亦中國詩也。

<sup>35</sup> 박무영(2008),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서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 청나라 문사들과의 교류 속에서 여성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시화자료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연구 및 교육 방면에서 시화자료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는 데에 一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李鍾殷·鄭珉(1988), 『韓國歷代詩話類編』, 서울:亞細亞文化社  
 趙鍾業(1989), 『韓國詩話叢書』, 서울:東西文化院  
 文姬順(1995), 『(韓國古典)女性詩批評研究』, 대전:學民文化社  
 趙鍾業(1996), 『韓國詩話總編』 1-17, 서울:太學社  
 許米子(2004), 『韓國女性詩文全集』 1-6, 서울:國學資料院  
 許米子(2007), 『허난설현』, 서울: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張伯偉(2012), 『朝鮮時代女性詩文集全篇』 1-3, 南京:鳳凰出版社  
 劉暢·許慶震·趙季(2012), 『韓國詩話人物批評集』, 서울:보고사  
 蔡美花·趙季(2012), 『韓國詩話全編校注』 1-12, 北京:人民文學出版社

### 논문

- 박영민(2003), 「시화의 기생한시 담론과 심미의식」, 『漢文教育研究』 제20호, 용인:한국한문교육학회  
 최재남(2003), 「『동시총화』 연구」, 『경남문학의 원류와 자장』, 창원:경남대학교 출판부  
 具智賢(2004), 「『安東世稿附聯珠錄』 소재 작품의 작가와 시작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서울:한국고전여성문학회  
 文姬順(2007), 「시화에 구현된 사대부가 여성 한시의 미적 특질」, 『韓國言語文學』 제62집, 대전:한국언어문학회  
 박무영(2008), 「18-19세기 중국 여성예술가의 소식과 조선의 반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서울:한국고전여성문학회.  
 朴賢淑(2009),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성문학 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제4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成珉京(2011), 「『고부기담』 연구-작자 문제와 창작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李鍾文(2011), 「李玉峯의 작품으로 알려진 漢詩의 作者에 對한 再檢討」, 『韓國漢文學研究』 제47집, 서울:한국한문학회  
 尹鎬眞(2012), 「『韓國詩話人物批評集』 1-5권의 출간을 맞이하여」, 『淵民學志』 제18집, 서울:연민학회

## Presentation of the Method for the Utilization of the Data on Korean Poetic Criticism

- Centered on the Resources of the Criticism on Women's Poems in 『*Han-guk Si-hwa In-mul Bi-pyng Jip* (Collection of Korean Poetic Criticism sorted by the figures)』 -

Jang, Jin-youp

On June 2012, 『*Han-guk Si-hwa In-mul Bi-pyng Jip* (Collection of Korean Poetic Criticism sorted by the figures)』 which is the joint output of the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n and Chinese scholars was published. This book is a collection of the data on the poetic criticism on the poems written by approximately 1,500 poets that are listed in the data of a total of 128 kinds of *Si-hwa* (book of poetic criticism). An advantage of this book is increased data accessibility since punctuation marks are included after inputting all the original text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aper aims to describe how the data on the criticism of the Korean poems written by women included in the 'Woman' and 'Gisaeng (Korean Geisha)' chapters of these books can be used in the research on the classic Korean poems written by women from two aspects.

First, it is possible to gain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works by utilizing the resources of *Si-hwa*. These resources includes extensive explanation, not only on the poem critique, but also on the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certain works. Because for a woman to produce poem in the past was rather rare, examining how each piece was produced under which circumstance is critical for understanding the piece. Moreover, the resources of *Si-hwa* can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the source criticism of Korean poems written by women. Second, the resources of *Si-hwa* serves as an important data when examining the discourse surrounding women's literature of the applicable era because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se resources to verify how the women's poems at a certain time was understood and discussed. Going steps further, it is possible to verify how the women's literature existed, in which form in the past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to the Korean poems written by women, the resources of *Si-hwa* can be used in diverse ways when it comes to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research on the Korean literature. Hopefully, this source book that was born with the joint effort made by the Korean and Chinese scholars will be used effectively, and that the diverse methods for the use of the resources of *Si-hwa* will be developed when it comes to the research and education on the Korean literature.

**Keywords : *Si-hwa*, Poetic Criticism, Women's literature, Sino-Korean poem**